

# 美 캠퍼스, 불교강좌 학생들에 '인기몰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강요되고 실천되며 백안의 대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반야의 지혜를 심어주고 있다.

버몬트대학에서는 불교생태학 교수의 특별강좌가 재학생들의 '인기 몰이'를 하고 있고, 텍사스주립대학에서는 캠퍼스 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Diamond Way)'의 주간강좌가 재학생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주리안(Missourian)지는 17일 스테파니 카자(Stephanie Kaza, 버몬트대학 종교학) 교수의 '선불교로 보는 환경문제와 그 대안'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소개하고, "대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스스로 일깨우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몬트대학의 특별강좌 시리즈에 편성·진행되고 있는 카자 교수의 특강은 다니엘 코헨(Daniel Cohen, 종교학) 교수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그의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적극 요구해, 마련될 수 있었다.

카자 교수는 1990년대부터 버몬트 주를 중심으로 '불교와 생태'라는 주제로 지역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2010년 말 '욕망과 소비에 대하여 (About Desire and Consumption)'를 주제로 지역에서 불교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근작 (Hooked! Buddhist Writings on Greed, Desire, and the Urge to Consume)은 '서구 사회에 소개된 놀랍고 새로운 불교적 소비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텍사스주립대학의 불교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도 주간강좌를 마련, 재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안내하며, 주목받고 있다.



스테파니 카자 미국 버몬트대 종교학 교수.

## 불교적 사유... 재학생 호응 이끌어

### 버몬트대에서 '불교생태'...텍사스주립대에서 '마음 탐구'

미주리안지는 카자 교수의 강의를 인용,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르쳤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환경문제는 그 관계가 헐거워지고, 심지어 주변 모두를 단지 대상(object)으로만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고 지적하고 '카자 교수가 강조한 마음챙김(mindfulness)이야말로 일상과 주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도했다.

"카자 교수는 연민, 자비 등의 사유와 실천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 설명한 코헨 교수는 "그의 불교적

사유는 관련 학계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연구 모델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립대학의 불교동호회 '다이아몬드 웨이'도 주간강좌를 마련, 재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안내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니버시티 스타(University Star)지는 10일 '다이아몬드 웨이'의 세르지오 아얄라(Sergio Ayala, 인류학 박사) 회장의 '마음 탐구(Expore Our Mind)' 주간강좌를 보도하고, "직관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을 통찰해 가는 여정을 안내하는 이번 강좌가

재학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호회 회원의 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아얄라 회장은 "그러나 동호회의 가치를 나눌 수만 있다면, 회원 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질 못할 것"이라며 "불교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근원 알게 하고, 더불어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좌의 특강을 설명했다.

대학 내 LBI 학생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시작되는 이 강좌에는 매주 70여 명의 재학생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학 웹 사이트에서 동호회 강좌를 처음 알았다"는 크리스 토프톤(Chris Lofton, 보육학)은 "내면의 힘과 그 힘의 연관성을 분명히 알게 하는 아얄라의 강의는, '캠퍼스 생활백서'라고 할만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호주 시드니대, 달라이 라마 초청 취소

## "중국경제 의존도 높은 호주 눈치보는 중"

오는 6월 호주 방문 예정이었던 달라이 라마(78)가 호주 시드니대학으로부터 초청을 취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 시드니대학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월 19일(현지시간) "시드니 대학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오는 6월 예정된 달라이 라마 초청계획을 취소했다"고 티베트 활동가와 호주 임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시드니대학이 새로 세운 민주주의 및 인권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중문판도 호주 방송을 인용, "시드니대학의 결정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드니대학 본부측은 이번 행사를 추진한 사람들에게 학교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언론 취재를 불허하고 티베트 활동가들의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주와 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총리회담을 갖고 외교전략대회와 전략경제대회를 개최기로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호주 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위안화와 호주달러화의 직거래를 통한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와 투자 및 교역 확대 가속화 등을 논의 했다. 중국과 호주가 급속히 접근하는 것은 무

엇보다 호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호주가 '서방세계' 중 가장 중국과 가까운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비난하면서 그를 초청하려는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사라 한슨 영 호주 상원의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현재 티베트의 상황에 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달라이 라마가 대학

## 시드니대, 티베트 활동가 진입 불허 중, "호주, 서방세계서 가장 가까워"

간부와 학생들에게 연결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한 운동가도 "시드니대학이 학문적 자유를 두고 타협을 했다. 티베트인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시드니대학은 호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대학이며 세계 50위안에 드는 대학이다.

앞서 2011년에 달라이 라마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도 길라드 총리는 그와의 면담을 거부해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호주 총리들은 달라이 라마가 호주를 찾았을 때 비공식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20대 티베트여성 또 분신



지난 12월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20대 티베트 여성이 중국 서부 쓰촨성에서 4월 16일 중국의 억압통치에 항의하며 분신자살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뒤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는 "쑤소(Jugtsu)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올해 20살

로,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며 "그녀의 사체는 인근 수도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장례를 위해 여성의 집 주변에 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에도 네 아이의 엄마가 분신해 숨진 바 있다.

이나은 기자



'활짝 웃는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

"달라이 라마의 웃음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저는 오일 페인트라는 소재로 성

하의 숭고한 정신을 유머러스한 캡슐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가 영국 울더샷(Aldershot) 지역 티베트불교계 발전에 힘을 더했다. 초상화가 리사 앤드루스(Lisa Andrews, 英)의 작품 'Dalai Lama LS(유화, 40x40 cm, 2007년)'가 9일 울더샷 불교공동체센터(Buddhist Community Center) 자선만찬에서 6,200파운드(약 1억3천만원)에 낙찰됐다.

차임 린포체(Chime Rinpoche)는 "성스럽게 2012년 6월 울더샷의 EBB 스타디움을 방문할 당시 서명한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초상화라는 점이 경매가를 높인 것 같다"며 "작가의 희망에 따라 낙찰금 전액 울더샷의 불교공동체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임 린포체는 1973년 영국에서 처음 티베트불교센터를 건립·운영한 스님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 유럽서 가장 큰 사찰 세워

## 중, 이탈리아 로마에 후아이시 사찰 창건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이탈리아 로마에 세워졌다.

후아이시(Hua Yi Si)사찰은 로마 중심지에서 동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 도시 토르프레 테스테(Tor tre teste)에 건립됐다.

이탈리아 중국커뮤니티의 재정적 지원으로 건립된 후아이시 사찰은 3월 31일 지안니 알레마노(Gianni Alemanno) 로마 시장과 중국 화교 및 티베트 승려 등 사부대중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알레마노 시장은 "로마에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큰 모스크(mosque)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바로 유럽에서 가장 큰 불교사원"이라고 말했다.

로마에는 약 5000~7000명의 중국인이



이탈리아 로마에 건립된 후아이시 사찰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국 절강성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럽에서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으로는 이탈리아 에스퀼리노(Esquilino) 언덕에 있는 빅토리오 광장 (Piazza Vittorio)에 2005년 세워진 것이 있다.

이나은 기자

불교종합쇼핑몰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